

10/17일 엠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정리 by 이다>

내부용>>

선거가 다가 오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던 우리 논의의 허점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신들과 같이
평소에 모른척하고, 없는 것으로 치고 살던 것들이
빠죽빠죽 빠져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생각하기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와 상관 없이
더 당당한 우리, 더 진실한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화이팅 !

1. 연세의 여학생들의 연세 여성주의 자치 모임의 활동에 대한 태도

- 여성제를 하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던 얘기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와 충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연세에서의 여성운동은 기독교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빈번하게 다양한 이슈와 사안으로 입장을 달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명이나, 여성제 내용의 기반을 모르기가 쉬운 학우들은 이제 더 이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입장들, 행사의 표현 양식들로써는 충여와 자치모임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저들과의 차이를 드러내는가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볼 때, 학우들이 우리를 인식하고 기독교세력과 구분하고 있는 내용도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와 가짜여성주의 구도와 닮지 않았다. 어쩌면 과격하고 분리주의적이고, 안티걸기를 좋아하는 극성 여성운동가들과, 남녀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여성 해방 보다는 인간 해방을 원하며, 새로운 방식의 온화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운동가들이라는 왜곡되고, 성찰되지 않은 구분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치 모임과 충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은 반대로 우리에게, 그 동안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시금 그간의 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화되는 것이다.

2. 선언에서 대화로!!! - 소통 방식에 대한 고찰!

우리의 운동은 너무나 정당하다. 여성의 억압이 삶의 곳곳에서 자명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자기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반성할 줄 모르는 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종 못할 가부장의 자식들은 곳곳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사방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박함과 상황의 명백함이 차고 넘침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운동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외치고, 왜 함께 하지 않느냐고 묻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아예 기대를 버리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의 이야기들이 전달되는 말, 글, 매체들이 우리가 처음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주목할 일이다.

저번 선거에서 두드러졌던, 그리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던 우리에게 대한 평가 중 하나는 바로 “저들은 거만하다. 일반 여학우들을 무시한다. 논리적 학문적으로 논박하면 기독교 여성들을 몰아 붙이는 것은 저들의 거만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정말 우리는 현학적이고, 공격적이고, 정치적이고, 논리적인가? 우리는 엘리트 주의에 경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각자의 입속을 몇번이나 거쳐 갔을 지도 모를 여성주의자들에게, 이런 평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찌된 일일까?

문제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지 않다. 바로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과 방식에서 바로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이미 여성주의 내부에는 공유하는 언어권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경험과 이전의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논의의 마지막 결과물만을 제시하고는 왜 그 자료가 다른 이들에게 배타감을 느끼게 하는지, 소통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용을 전달하고 공론화 시킬 때 그 형식이나 방식을 고민하면서(선전물을 만들고 자료집 글을 쓰고, 사람들과 만나 선거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혹시 내가 비겁하게 할 말을 다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논의 내용의 깊이는 물론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하자. “이 문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번역되어 읽히거나, 어떻게 행간으로 읽히거나, 문자 이외의 것을 단서로 우리에게 대한 편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사실 우리의 말들이 생활 언어로 풀리지 않고, 자기 말로 풀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여성주의 논의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기 삶과의 연관 없이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테니까